

## 2. 문항별 문항카드

### 문항카드 1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II, 윤리와 사상, 문학, 고전
	핵심개념 및 용어	일의 동기, 삶의 방식
예상 소요 시간	48분/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제시문]

(가) ‘처녀가 용왕 사는 쓰(沼) 있는 천곡’에 오기가 힘들어 그렇지 일단 오기만 하면 용왕은 최단 시간에 백발백중 아들을 점지한다.’는 전설대로 일곱 달도 지나지 않아 처녀는 아이를 낳았다. 당연히 딱두꺼비 같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녀가 어떤 연고로 황만근에게 시집을 왔는지 황만근은 물론 처녀나 시어머니 모두 입을 열지 않았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처녀의 친정에서 사람이 찾아올 리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동네 사람들이 처녀가 집을 나온 전말을 살살이 알게 되었던 데다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져서 황만근이 없는 데서는 애깃거리가 그것뿐인 듯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은 지 삼칠일이 되던 날, 온다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처녀는 여전히 처녀였다. 총각 황만근은 아들을 강보에 싸안고 젓동냥을 하러 신대 1리에서 3리까지 매일 돌아다녔다. 아이는 몸무게가 열 근이 넘어서도 아버지에게 업히거나 아버지의 경운기에 실려 다니며 사람과 소의 젓을 얻어먹었다. 집에 있는 아이의 할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손 하나 까딱할 리 없었다. 모든 건 황만근의 책임이었고 일이었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앓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두 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눈 주변에서 잠은 봉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짚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 주고 얻어 온 고기를 뜨고 굵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 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술가락을 대 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퉁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계에 쓸 폐지를 산 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움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굶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천곡: 내와 골짜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포정: 소나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염습: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는 일.  
 \*산역: 시체를 묻고 뒤흔을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

(나) 칼뱅은 신의 절대적 권위를 내세워,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칼뱅은 ‘직업 소명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직업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소명’이며, 인간의 직업 노동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생활하여 직업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에 의해 선택받았음을 보여 주는 징표라는 것이다.

칼뱅 역시 투터처럼 중세 수도사의 탈세속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삶보다는 현세의 직업에 충실하며 금욕적이고 근검·절약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욕적인 삶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직업에 근면·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재산 축적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았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은 한 인간이 종교적인 구원을 얻고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되었고,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다) 긴긴 여름, 게다가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오후엔 주유소에서,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터를 돌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게 마련인데, 모조록 그해의 여름이 그러했던 생각이 든다. 주유소에선 시간당 천오백 원을, 편의점에선 천 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늘 불만이 가득했다. 그게 그러니까, 시작 때만 달리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편의점 사장은, 이러면서 세상을 배운다라고 말했지만, 이천 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냐? 글썽 천 원이라니. 덤기만 달고, 짜디짠, 지구.

코치 형이 가게를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의 새벽이었다. 어머니? 좋아요. 편의점 알바 역시 코치 형의 소개로 얻은 것이므로, 좋다고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었다. 지역의 알바 정보를 한 손에 쥐었다고 할까, 아무튼 그래서 후배들에게 일자릴 소개하고 요조조모 코치하길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이 얼마나 요긴한가, 나는 카프리션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너 푸시업 잘하나? 푸시업이라고? 팔 굽혀 펴기 말이다. 무조건 잘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그때도 이미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폐이가 세, 시간당 삼천 원인데……, 대신 몸이 좀 힘들어. 삼천 원이요? 앞뒤 젼 것도 없이, 시간당 삼천 원이란 말에 귀가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내 주변에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총구말구요. 그런 이유로, 나는 ‘푸시맨’이 되었다. 좋은 점은 전철을 공짜로 탄다는 것, 팔 힘이 세진다는 것, 게다가 다른 알바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는 거야. 이틀테면 여기 일을 마친 다음 슬슬 역에 나가 ‘한 따까리’ 하면 그만이란 거지. 끝꿈해. 공사 소속이니 지불 확실하지, 운동이 되니 밥맛도 좋아, 그러니 잠 잘 자고 주유소 일도

계속하고……. 코치 형의 코치가 쉬지 않고 이어진 것도 까닭은 까닭이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유는 삼천 원이었다. 요는 짧고 굵게 번다, 이거군요. 그것이 나의 산수다. 웃긴 말건, 세상에 그런 산수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있게 마련이다.

미안하구나.

아버진 그렇게 얘기했다. 또 그 소리. 내가 일만 한다 하면 늘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들을 만했는데, 결국 들어나 마나가 왜 버린 지 오래다. 나이 마흔다섯에 시간당 삼천오백 원, 즉 그것이 아버지의 산수였다. 여하튼 무슨 상사에 다녔는데, 여하튼 ‘무슨 상사’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직장이었다. 딱 한 번 나는 그곳을 찾아가간 적이 있다. 중학생 때의 일인데 도시락을 갖다 주는 심부름이었다. 간신히 찾아낸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하튼 그곳에 있기는 한, 그런 사무실이었다. 귀들이 다닐 것 같은 어둑한 복도와, 형광등과, 철이 벗겨진 목조의 문. 혹은 외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울썩년’ 스러운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꼬박꼬박 도시락만 먹어 온 얼굴의 아버지가 가냘픈 표정으로 사무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원래 좀 노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나는 조용한 소년이 되어 버렸다. 뭐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나의 산수’와 같은 게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인간에겐 누구나 자신만의 산수가 있다. 어쨌면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수’를 목격했거나, 그 연산의 답을 보았거나, 혹은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았다.

\*푸시맨: 좁잡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을 지하철 안으로 밀어 넣어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

(라) 벽을 붙이고 지붕 올리는 일이 완료되자마자 나는 입주를 했는데 그날은 바로 7월 4일이었다. 벽의 판자들은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 빈틈없이 맞붙였기 때문에 비는 조금도 새지 않았다. 벽을 붙이기에 앞서 두 수레분의 돌을 숲속 호숫가에서 언덕 위까지 팔에 안아 나른 후, 집 한 통통이에 굴뚝의 토대를 쌓았다. 나는 가을 내내, 밭일을 한 뒤 굴뚝 작업을 했다. 추위 때문에 불이 필요해지기 전에 일을 마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동안은 아침 일찍 집 밖 한테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집에서는 이것이 더 편하고 재미있는 취사 방법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빵이 다 구워지기도 전에 비바람이 불 때는, 불 위에 판자 몇 장을 세워 놓고 그 밑에 앉아 빵을 지켜보면서 즐거운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

겨울이 닳지기 전에 나는 굴뚝을 완성했다. 그리고 비가 썩 염려는 없지만, 사방의 외벽에다가 널빤지들을 대었다. 그런데 이 널빤지는 통나무를 처음 다듬을 때 커넨 들쭉날쭉한 생나무여서 대패로 옆을 반듯하게 밀어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빈틈없이 널빤지를 대고 석회를 바른 집 한 채를 갖게 되었다. 집은 길이가 15피트, 폭이 10피트, 그리고 기둥의 높이가 8피트였는데 다락방과 벽장이 있고, 양쪽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하나씩 있었으며 뚜껑 문도 두 개 있었다. 출입문은 한쪽 끝에 있고 그 맞은편에 벽돌로 된 벽난로가 있었다. 나는 이 집을 짓는 데 든 정확한 건축 비용을 따져 보았다.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했으니 노임은 제외했고,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세로 계산했다. 합계 28달러 12½센트. 이것이 내가 사용한 자재의 전부이다. 나는 내 통나무집 바로 옆에 자그마한 헛간도 하나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남은 자재를 주로 썼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직도 우리는 개미처럼 비천하게 살고 있다. 우화를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개미에서 인간으로 변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줄일 것이며, 백 가지나 천 가지가 되도록 두지 마라. 문명 생활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서는 구름과 태풍과 그리고 천 가지의 고고도 한 가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배가 침몰하여 바다 밑에 가라앉아 목표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측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뛰어난 계산가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 사람은 국가가 사업하고 열음을 수출하고 전신으로 통신하며 한 시간에 30마일을 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아무런 의의심도 품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아홉 바늘의 수고를 막아 준다고 하면서 오는 천 바늘을 꿰매고 있다. 일, 일, 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한 일 하나 하고 있지 않다.

### 3. 출제 의도

-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음.
- 주어진 네 제시문을 ‘일’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이 일에 관해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그 일을 통해 체현되는 ‘삶의 방식’(태도)을 찾아 서술하고, 이를 결론에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6호]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p>과목명: 국어 II</p> <p>(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글에 담긴 의미를 구성하는 독서 행위는 그 자체가 문제 해결적인 사고 과정이다. 즉, 단어와 문장의 의미 파악, 글의 전개 과정 이해, 필자의 주장이나 생각의 추론 및 타당성 판단 등 독서 과정의 매 순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지적 사고 과정의 연속이다. 또한 독서는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이기도 하다. 독서가 지니는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독서에 적용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88쪽)</p>	제시문 (가), 문제 1

성취 기준 2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 정보의 선별 능력과 맥락에 맞는 조직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이 목적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독자가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이들 정보 중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글의 주제나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1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면서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이러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고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문학 작품을 꼼꼼히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 작품 생산 시점뿐만 아니라 수용 시점에서의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폭을 넓히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을 높이도록 한다. (135쪽)	제시문 (다)
성취 기준 2	(4) 문학이 예술,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한다. 문학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언어로써 표현한 예술이다. 문학은 인간 문제에 대한 사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인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시대적·사회적 조건을 반영하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사회 분야와도 관련을 맺는다. 인간의 생활 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문학은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다. 문학이 다른 분야와 맺는 관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생산 활동을 심화하도록 한다. (136쪽)	제시문 (다)
과목명: 고전		관련
성취 기준 1	(5) 고전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가치를 가지게 된 요인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 보고, 다른 사례 등과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비판적 평가를 통해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한다. (146쪽)	제시문 (라)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나) 그리스도교 윤리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원 및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징을 조사하고 그리스도교 윤리의 현대적 의의에 대해 토론한다. ③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그리스도교 윤리의 현대적 의의	제시문 (나)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만 작성함.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제구성 여부
국어Ⅱ	조현설	해냄에듀	2016	44-55	제시문(가)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천재교육	2017	152	제시문(나)	○
윤리와 사상	박병기	지학사	2016	172-174	제시문(나)	○
문학	박종호	창비	2016	25-28	제시문(다)	○
고전	한철우	교학사	2016	148-153	제시문(라)	○
고전	김종철	천재교육	2017	99-102	제시문(라)	○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 II』(해냄에듀, 2016)에 실린 성석제의 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아들을 얻게 된 과정과 가족과 동네의 대소사와 굶은일을 도맡아 일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황만근이 우직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2017)에 실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그리스도교 윤리의 현대적 의의」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지학사, 2016)에 실린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중 칼뱅의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직업은 신이 내린 소명이며 근면 성실한 생활을 통한 직업에서의 성공을 신의 구원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조하는 직업 소명설을 통해 신앙과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우리의 일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창비, 2016)에 실린 박민규의 소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주인공인 고등학생 ‘나’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된 아버지의 초라한 초상을 직면하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워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정신적인 것 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 즉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돈의 가치로만 계산하는 삶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고전』(천재교육, 2017)에 실린 소로의 「월든」의 ‘숲 생활의 경제학’ 일부와 고등학교 『고전』(교학사, 2016)에 실린 소로의 「월든」의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일부를 통합하여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소로가 월든 호숫가의 숲으로 들어가 손수 오두막 집을 짓는 과정과 자신이 왜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성찰하는 부분이다. 인용한 이 제시문을 통해, 문명 사회에서 불필요한 일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소로의 통렬한 비판 의식과 그 대안으로서 자연에 회귀하여 자급자족하며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b>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b>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반 글자 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점 점수</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5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점 감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6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점 감점</td> </tr> </table> <p>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p> <p><b>2. 내용적 측면(40점)</b>  <b>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b>                      (가) 동기: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역할(양육, 가족 부양, 마을 일 등)을 진심을 다해 완수하려는 책임감.(4점)                      방식: 가족을 돌보고 마을의 대소사와 굶은일을 도맡아 숙원되게(전문적으로) 잘 처리하는 모습에서 매사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식이 나타남.(4점)                      (나) 동기: 신의 소명에 대한 믿음을 현세에서 실현하여 구원받기 위함.(4점)                      방식: 직업에서의 성공(합법적인 부의 축적)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서 부지런하고(근면) 검소한(절제된, 금욕적인) 삶이 나타남.(4점)                      (다) 동기: 초라하고 서글픈 아버지의 모습을 직면하고 돈의 중요성(필요성)을 깨달은 현실인식, 자각.(4점)                      방식: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면 마다하지 않고 전전하는 모습에서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계산하는 삶의 방식이 나타남.(4점)                      (라) 동기: 불필요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는 문명사회를 떠나 주체적 삶을 실천하기 위함.(4점)                      방식: (자연 속에서 통나무집을 손수 지으며) 작은 기쁨을 느끼고 자급자족하는 모습에서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만 매진하는 소박하고 간소한 삶(생태적 삶)이 드러남.(4점)</p> <p><b>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글(서론 / 본론 / 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b>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p> <p><b>[예시]</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서론:</b> 제시문 (가)-(라)는 여러 가지 동기로 일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b>결론:</b> 따라서(결론적으로) 책임감, 종교적 믿음, 현실자각, 대안모색 등의 다양한 동기에 의해 성실한 삶, 금욕적인 삶, 소박한 삶이나 이해타산적인(순용적인) 삶의 방식도 나타난다.</p> </div> <p>*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만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p>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40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동기와 방식을 찾아 제시(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7. 예시 답안**

(가)-(라)는 여러 가지 동기로 일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가)의 동기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족을 돌보고 마을의 대소사와 굶은일을 도맡아 숙원되게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타난다. (나)에서 직업을 갖는 이유는 신의 소명에 대한 믿음을 현세에서 실현하여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런 신념에서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서 부지런하고 검소한 삶이 나타난다. (다)의 일의 계기는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돈의 중요성을 깨달은 현실인식이다. 이런 자각으로 돈 되는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모습에서 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삶이 보인다. (라)에서 일의 계기는 불필요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는 문명사회를 떠나 주체적 삶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작은 기쁨을 느끼며 자급자족하는 모습에서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에만 매진하는 간소한 삶이 드러난다. 따라서 책임감, 종교적 믿음, 현실자각, 대안모색 등의 다양한 동기에 의해 성실함, 금욕과 근면, 이해타산, 소박함 등의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

문항카드 2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1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전, 문학, 국어 I,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일, 작업, 고역, 이상적 일터, 효율 임금 이론
예상 소요 시간	48분/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일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마)와 (사)를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40점, 550-570자]

[ 제시문 ]

(라) 벽을 붙이고 지붕 올리는 일이 완료되자마자 나는 입주를 했는데 그날은 바로 7월 4일이었다. 벽의 판자들은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 빈틈없이 맞붙였기 때문에 비는 조금도 새지 않았다. 벽을 붙이기에 앞서 두 수레분의 돌을 숲속 호숫가에서 언덕 위까지 팔에 안아 나른 후, 집 한 모퉁이에 굴뚝의 토대를 쌓았다. 나는 가을 내내, 발일을 한 뒤 굴뚝 작업을 했다. 추위 때문에 불이 필요해지기 전에 일을 마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동안은 아침 일찍 집 밖 한테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더 편하고 재미있는 취사방법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빵이 다 구워지기도 전에 비바람이 불 때는, 불 위에 판자 몇 장을 세워 놓고 그 밑에 앉아 빵을 지켜보면서 즐거운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

겨울이 닳치기 전에 나는 굴뚝을 완성했다. 그리고 비가 썬 염려는 없지만, 사방의 외벽에다가 널빤지들을 대었다. 그런데 이 널빤지는 통나무를 처음 다듬을 때 커낸 들쭉날쭉한 생나무여서 대패로 옆을 반듯하게 밀어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빈틈없이 널빤지를 대고 석회를 바른 집 한 채를 갖게 되었다. 집은 길이가 15피트, 폭이 10피트, 그리고 기둥의 높이가 8피트였는데 다락방과 벽장이 있고, 양쪽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하나씩 있었으며 두경 문도 두 개 있었다. 출입문은 한쪽 끝에 있고 그 맞은편에 벽돌로 된 벽난로가 있었다. 나는 이 집을 짓는 데 든 정확한 건축 비용을 따져 보았다.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했으니 노임은 제외했고,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세로 계산했다. 합계 28달러 12½센트. 이것이 내가 사용한 자재의 전부이다. 나는 내 통나무집 바로 옆에 자그마한 헛간도 하나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남은 자재를 주로 썼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직도 우리는 재미처럼 비천하게 살고 있다. 우화를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재미에서 인간으로 변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 세발 바라건

데, 여러분의 일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줄일 것이며, 백 가지나 천 가지가 되도록 두지 마라. 문명 생활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서는 구름과 태풍과 그리고 폭 거칠고 고도 한 가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배가 침몰하여 바다 밑에 가라앉아 목포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측 항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뛰어난 계산가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 사람은 국가가 사업하고 일음을 수출하고 전신으로 통신하며 한 시간에 30마일을 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아무런 의아심도 품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아홉 바늘의 수고를 막아 준다고 하면서 오늘 천 바늘을 꿰매고 있다. 일, 일, 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한 일 하나 하고 있지 않다.

(마) 정치 철학자로 알려진 아렌트 여사는 우리가 보통 ‘일’이라 부르는 활동을 ‘작업’과 ‘고역’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노력, 탐파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며,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전자가 자의적인 활동인 데 반해서 후자는 타의에 의해 강요된 활동이다. 전자의 활동을 창조적이라 한다면 후자의 활동은 기계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이 ‘작업’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일이 ‘고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냐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일이 ‘작업’으로서의 일은 아니다. 어떤 일은 부정적인 뜻으로서의 ‘고역’이기도 하다. 회초리를 맞으며 노예선을 짓는 노예들의 피땀 묻은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엔커녕 그들을 짓밟은 ‘고역’이다. 위생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조건하에 타당치 않게 박한 보수를 받고 무리한 노동을 팔아야만 하는 일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고역이다.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의 구별은 단순히 지적 노고와 육체적 노고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한 학자가 하는 지적인 일도 경우에 따라 고역의 가장 나쁜 예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도 경우에 따라 작업\*의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을 구별하는 근본적 기준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타락시키는 것이냐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자율성에 있다. 그런데 똑같은 일, 똑같은 고통스러운 육체적 혹은 정신적 노력의 집중도 일하는 당사자의 주체적 사고방식에 따라 자율적이거나 타율적일 수 있다.

\*작업: 능력이나 적성에 알맞은 직업.

(바) 새로 거른 막걸리 첫빛처럼 뿌영고  
큰 사발에 보리밥, 늘기가 한 자로세.  
밤 먹자 도리께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사)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의 결정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효율 임금

이론이다. 즉, 임금이 높으면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한 기업은 일부러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게끔 하기도 한다. 1914년 1월,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와 생산적에서의 높은 이직률로 골머리를 앓던 헨리 포드는 직원들의 일당을 그 당시 평균 임금의 두 배인 5달러로 올렸다.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어떤 연구자에 의하면 이 같은 임금 상승 이후에 포드의 자동차 회사는 14% 적은 노동자들로 일일 자동차 생산량을 15% 올렸다고 보고하였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근로자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3. 출제 의도**

- 문제 2의 출제 의도는 일이라는 주제로 추상적인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지문 속에 사실적으로 묘사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면에 함의된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적 사고력과 시 속에 묘사된 이상적인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과 방안을 스스로 찾아 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임.
- 일과 연관된 특정한 이론적 쌍 개념(‘작업’ 과 ‘고역’)을 근거로 생태학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 자급자족하는 일의 종류와 의미를 스스로 정의해 보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 지문에 묘사된 이상적인 일터의 모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본질적인 조건과 제도적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타진해 보는 유추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호]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과목명: 고전	관련	
	성취 기준 1	(6) 현대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전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가치를 재평가한다. 현대 사회에는 정보 통신 기술 문명의 발달, 심각한 환경 파괴 등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급격한 변화는 고전의 선별과 수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오늘날 어떤 글들이 고전의 반열에 오르고 높이 평가되는지 살피고, 현대인들의 관심사에 따라 예전에 인정받던 고전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 보도록 한다. (146쪽)	제시문 (라)
	성취 기준 2	(11) 고전을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해 탐구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다. 고전은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기록이다. 당대의 지배적인 가치를 따르며 조화를 중시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낡은 인습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어려움을 견디며 애쓰는 삶도 있다. 고전을 통해 다양한 삶을 접하는 가운데 자기를 존중하고 관용과 결손의 자세로 타인을 대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성을 기르도록 한다. (148쪽)	문제 2
성취 기준	(12) 고전의 수용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형성한다.	문제 2	

3 고전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나 성찰이 담겨 있다. 고전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전에 담긴 지혜를 삶의 여러 국면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참된 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을 읽고 유사한 현실의 사례들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가운데 고전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148쪽)

과목명: 국어 I		관련
성취 기준 1	(4)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독서는 단순히 문자 기호를 읽을 줄 아는 해독(解讀)의 과정이 아니라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전언(傳言)을 이해하는 독해(讀解)의 과정이다. 독서는 글의 고전적 의미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고등 사고 과정이다. 이에 유의하여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제시문 (마)
성취 기준 2	(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갖추어 대상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작문 상황에 맞게 선별하고 조직해야 한다. 글의 종류, 독자, 매체 등에 따라 적절한 정보와 그 조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인 통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문제 2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5)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작품 속의 세계와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자신의 삶과 생각을 통해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독자는 풍부한 감수성, 예리한 통찰력, 따뜻한 포용력, 바람직한 가치관 등을 두루 갖춘 내면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문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삶의 다양성을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자아의 내면세계가 보다 넓고 깊어짐으로써 타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개성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138쪽)	제시문 (바)
성취 기준 2	(1) 세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면서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 문학 작품의 이해·감상·평가는 수용자가 이러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 관계를 분석하고 작품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문학 작품을 꼼꼼히 읽으면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고 작품 생산 시점뿐만 아니라 수용 시점에서의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폭을 넓히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을 높이도록 한다. (135쪽)	문제 2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 생산 비용의 절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 정부의 재정 활동과 경제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4)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 변동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예측한다. (137쪽)	제시문 (사)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만 작성함.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전	한철우 외	교학사	2016	148-153	제시문(라)	○
고전	김종철 외	천재교육	2017	99-102	제시문(라)	○
국어 I	윤여탁 외	미래엔	2016	214-217	제시문(마)	○
문학	김윤식 외	천재교육	2016	350	제시문(바)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5	54	제시문(사)	○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고전』(천재교육, 2017)에 실린 소로의 「월든」의 ‘숲 생활의 경제학’ 일부와 고등학교 『고전』(교학사, 2016)에 실린 소로의 「월든」의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일부를 통합하여 출제되도록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소로가 마을을 등지고 월든 호숫가의 숲으로 들어가 실제로 했던 일의 모습과 자신이 왜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문명 사회에서의 현대인의 삶에 대한 통렬한 비판 의식과 그 대안적 삶으로서 자연에 회귀하여 자급자족하며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6)에 실린 정약용의 시 「보리타작」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에는 노래를 주고 받으며 함께 신나게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현대인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이상적인 일의 모습은 무엇인지 반추해 보게 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국어 I』(미래엔, 2016)에 실린 박이문의 「일」을 출제되도록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특히 정치 철학자 아렌트 여사가 제시한 ‘작업’과 ‘고역’이라는 일의 구별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짚어 보게 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경제』(천재교육, 2015)의 「효율 임금 이론: 임금의 크기가 노동의 질을 결정한다」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생산성이 임금 크기를 결정한다는 전통적 경제학의 관점과 달리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을 결정하므로 임금을 높일수록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효율 임금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기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 임금 등 경제적 유인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b>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b></p> <p>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p> <table border="1"> <tr> <th>위반 글자 수</th> <th>감점 점수</th> </tr> <tr> <td>±1~25자</td> <td>1점 감점</td> </tr> <tr> <td>±26자 이상</td> <td>2점 감점</td> </tr> </table> <p>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p> <p><b>2. 내용적 측면(40점)</b></p> <p>1) <b>제시문 (마)의 논지를 파악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일의 의미를 심도 있게 도출했는지 평가한다.(20점)</b></p> <p>① 제시문 (마)의 논지: 아렌트에 의하면 작업은 자의적, 창조적인 일, 고역은 타의적, 기계적인 일이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구분은 자율성의 여부에 따른 인간 존엄성 구현의 가능성에 있음.(5점) ② (마)의 관점을 적용하면 제시문 (라)는 육체적 노동이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의 방식을 스스로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면에서 자의적, 창의적 작업임.(10점) ③ 제시문 (라)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 생태적 삶을 주체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짐.(5점)</p> <p>2) <b>(바)에 나타난 일의 모습을 파악하고, (마)와 (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바)의 모습에다가가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20점)</b></p> <p>①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 사람들이 함께 흥겹게 일하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장면임. (6점) ② 제시문 (마)를 통한 제시문 (바)의 실현 조건: 개인적 차원에서는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고역이 아닌 보람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주체적으로 일하려는 노력이 필요함.(5점) ③ 제시문 (사)를 통한 제시문 (바)의 실현 조건: 제도적 차원에서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물론, 사기 진작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후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5점) ④ 제시문 (마)와 (사)를 종합하여 제시문 (바)의 실현 조건을 제시함: 개인적 차원의 주체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어우러져야 함.(4점)</p> <p>*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p> <p><b>[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b></p> <table border="1"> <tr> <td rowspan="4">기술적 측면 (-5점)</td> <td>글자 수 위반(-2점)</td> <td>±1~25자 ±26자 이상</td> <td>1점 감점 2점 감점</td> </tr> <tr> <td>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td> <td>중대한 오류</td> <td>최대 3점 감점</td> </tr> <tr> <td>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td> <td>한 문장 이상</td> <td>최대 5점 감점</td> </tr> </table>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26자 이상	1점 감점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40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26자 이상	1점 감점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 용 적 측 면 (40점)	① (마)의 논지를 근거로 (라)의 일의 의미를 도출했는지 평가(20점)	(마)의 논지만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3-5점
		(마)의 논지는 정확히 제시했지만 (라)의 일을 고역으로 설명하는 경우	3-8점
		(마)의 논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라)의 일을 작업으로 설명하되, 인간 존엄성 구현의 측면을 논의하지 않는 경우	11-15점
		(마)의 논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라)의 일을 작업으로 설명하고 인간 존엄성 구현의 측면까지 충실히 논의한 경우	16-20점
	② (바)에 나타난 일의 모습을 파악하고, (마)와 (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바)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평가(20점)	(바)에 묘사된 모습만 정확히 제시한 경우	3-6점
		(바)에 묘사된 모습을 정확히 제시하고 (마)와 (사)의 내용 중 한가지만 사용하여 실현 조건을 제시한 경우	7-11점
		(바)에 묘사된 모습을 정확히 제시하고 (마)와 (사)의 내용 모두를 사용하여 실현 조건을 제시한 경우	12-16점
		(바)에 묘사된 모습을 정확히 제시하고 (마)와 (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한 경우	17-20점

**7. 예시 답안**

(마)에서 아렌트는 일을 작업과 고역으로 구분했다. 작업은 자의적, 창조적이고 고역은 타의적, 기계적인 특징이 있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구분은 자율성의 여부에 따른 인간 존엄성 구현의 가능성에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라)의 일은 육체적 노동이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의 방식을 스스로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면에서 자의적, 창의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일은,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 대안적 삶을 주체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바)에는 사람들이 함께 흥겹게 일하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이상적인 일터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한 조건을 (마)와 (사)에서 찾으면, 개인적 차원의 주체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어우러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고역이 아닌 보람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주체적으로 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물론, 사기 진작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후한 임금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바)의 모습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 (567자)

**문항카드 3**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 모집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열 I /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고전,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일, 스트레스, 휴식, 여가
예상 소요 시간	24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3]** 제시문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시문 (자)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자)와 (차)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20점, 400-420자]**

**[제시문]**

(아) 토포러(torporer)는 매우 긴 잠을 자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토포러들은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이 년 동안 먹지도 깨지도 않은 채 내내 잠만 잔다. 사실 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잠이 들고 또 아무 때나 일어난다. 당연히 글을 파서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몸속에 과도한 지방을 축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꿈이 아닌 것이다. “혹시 냉동 인간을 말하는 건가요?”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이불을 덮고 베개를 베고 잡니다.”

시간이 곧 돈으로 환금되는 21세기에 토포”는 재앙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기도 하다. 가스 설비 부품 회사의 사장인 허 씨는 토포 예찬론자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동 시장에 걸려 있는 마지막 플랜트 부품 계약이었는데, 말 그대로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었죠. 무척 바빴어요. 직원들과 관계도 나빠졌고요. 야단치고, 싸우고, 성질도 많이 냈죠. 직원들이 제 마음만큼 안 따라주더군요. 야속했어요. 불안이 엄습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점점 잠을 자지 않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몸은 천근만근이었는데 이상하게 누우면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물방울 같은 것이 자꾸 솟아오르는 것 같고, 제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였어요. 영국이 기술을 대고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는 합작 회사가 계약을 뒀더니 봐요. 기술력, 가격 둘 다에서 참패였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집을 쟁겼어요. 예전에 낚시하러 다닐 때 사 둔 산장이 있었거든요. 뭐, 거창한 산장은 아니고 조그만 오두막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갔어요. 어찌나 울었는지 울다가 그만 탈진이 되어 버렸어요. 오두막 한 쪽에 짚단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잠이 들어요. 백질십이 일 동안.”

“몸은 어떻던가요?”

“상쾌했어요.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니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당연히 엉망이겠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고 연락도 안 되니.”

\*토포: 무기력, 흥미를 뜻하는 말이지만, 생물학적 용어로는 운혈 동물의 동면을 뜻함.

(자) 런던이나 몇몇 지방에서는, 목수는 자신의 정력이 왕성한 상태를 8년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들은 성과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다수의 기타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그리고 임금이 보통보다 높은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농업 노동에서도 나타난다. 거의 모든 종류의 수공업자는 특수한 작업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의사인 라 마치니는 이러한 질병에 대해 한 권의 책을 썼다. 우리는 우리의 사병들이 우리 중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병들이 어떤 특정 작업에 고용되어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불될 때, 장교들은 사병들이 성과급에 따르더라도 매일 일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벌 수 없다고 명문화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규정이 명문화되기 전에는 상호 경쟁과 더 많이 벌려는 욕망 때문에 사병들은 파로하고, 이 파로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주일 중 나흘 동안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것이 나머지 사흘을 빈둥거리는 것의 진정한 원인인데도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간에 계속해서 며칠간 많은 노동을 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 욕구는 폭력 또는 어떤 강력한 필요성에 의해 저지되지 않는 한 거의 억제할 수 없다. 이 휴식에 대한 욕구는 본성의 요구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때로는 편히 쉬는 것에 의해, 때로는 유희와 오락에 의해, 그 요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흔히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며, 거의 언제나 조만간 특유한 직업병을 유발하게 된다. 적당히 일함으로써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 년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양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 모든 업종에서 판명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자) 여가라는 것을 단순히 ‘노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자아 성장,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여유 있는 삶의 영위, 여가 활동을 통한 도전 정신의 만족감 부여, 일과 여가의 균형 잡힌 삶, 자아 존중감의 유지 등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가의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잘못된 여가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릇 산업 사회에서는 노동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가 전부였다. 그러나 21세기는 놀이하는 인간, 즉 호모 루멘스의 시대다. 앞으로는 창의력에 기초한 ‘일하듯 놀고 놀듯이 일하는 사회’가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3. 출제 의도**

- 문제 3의 출제 의도는 특정한 이론이나 주장을 활용하고 적용하여 문학 텍스트 속에 묘사된 어떤 상황이냐 상태의 원인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능력과 이런 원인 파악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서로 다른 논지를 견지하는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결합하여 모색하는 대안 제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음.
-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피로사회’에서 사람들이 파로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명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휴식의 필요성과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호]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호]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4) 문학이 예술,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한다. 문학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언어로써 표현한 예술이다. 문학은 인간 문제에 대한 사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인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시대적·사회적 조건을 반영하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사회 분야와도 관련을 맺는다. 인간의 생활 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문학은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술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다. 문학이 다른 분야와 맺는 관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생산 활동을 심화하도록 한다. (133쪽)	제시문 (아), 문제 3
	성취 기준 2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작품은 그것이 창작될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다. 시대 상황은 작가가 처한 시대의 한계로 말미암아 저절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작가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작가가 특별히 선택하여 부각시킨 것도 있다. 한국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각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의식, 인물, 배경, 표현 등을 이해하고 이를 감상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 배경을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7쪽)	제시문 (아)
	과목명: 고전		관련
	성취 기준 1	(6) 현대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전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가치를 제정한다. 현대 사회에는 정보 통신 기술 문명의 발달, 심각한 환경 파괴 등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급격한 변화는 고전의 선별과 수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오늘날 어떤 글들이 고전의 반열에 오르고 높이 평가되는지 살피고, 현대인들의 관심사에 따라 예전에 인정받던 고전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 보도록 한다. (146쪽)	제시문 (자)
성취 기준 2	(8) 고전을 읽고 공동의 관심사나 현대 사회에 유효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통합적 국어 활동을 수행한다. ‘인간의 본성’, ‘사회와 갈등’, ‘문명과 기술’, ‘예술과 문화’, ‘전쟁과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문제를 정하고 이 문제를 고전을 통해 탐구한다. 하나의 문제를 여러 고전을 통해 종합하여 탐구할 수도 있고, 하나의 고전을 통해 여러 문제를 심화하여 탐구할 수도 있다. 탐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 토론, 서평, 논술 등 다양하고 통합적인 국어 활동을 수행한다. 교실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회적 연결망에 바탕을 둔 공간에서의 활동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147쪽)	문제 3	

성취 기준 3	(12) 고전의 수용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형성한다. 고전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나 성찰이 담겨 있다. 고전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전에 담긴 지혜를 삶의 여러 국면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참된 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을 읽고 유사한 현실의 사례들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가운데 고전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148쪽)	문제 3
과목명: 국어 II(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 기준 1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글에 담긴 의미를 구성하는 독서 행위는 그 자체가 문제 해결적인 사고 과정이다. 즉, 단어와 문장의 의미 파악, 글의 전개 과정 이해, 필자의 주장이나 생각의 추론 및 타당성 판단 등 독서 과정의 매 순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지적 사고 과정의 연속이다. 또한 독서는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이기도 하다. 독서가 지니는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독서에 적용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88쪽)	문제 3
성취 기준 2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 정보의 선별 능력과 맥락에 맞는 조직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이 목적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독자가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이들 정보 중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글의 주제나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89쪽)	문제 3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나) 일과여가 현대 사회에서 일과 여가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는 창업과 기업이 정신의 중요성을 파악하며, 근로 조건의 개선 및 여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① 현대 사회에서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미래사회의 직업 세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하여 설계한다. ②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찾아본다. ④ 현대 사회에서 여가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설계한다.	제시문 (차)

나) 자료 출처

-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만 작성함.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우한용	비상교과서	2017	314-319	제시문 (아)	○
고전	정민	해냄에듀	2016	67-72	제시문 (자)	○
사회	이동환	천재교육	2017	129	제시문 (차)	○

5. 문항 해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과서, 2017)에 실린 김언수의 소설 「캐비닛 - 토포러」를 출제되도에 포함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매우 깊은 잠에 빠져드는 사람을 일컫는 ‘토포러’에 대한 소개와 허 씨의 사례를 통해 토포에 빠지게 되는 과정까지를 묘사하는 글로, 내적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 토포가 아닌 다른 형태의 휴식이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고전』(해냄에듀, 2016)에 실린 스미스의 「국부론-노동의 임금」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노동의 보수인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즉 근면의 강조와 성과급 체계 속에서의 파도를 통해 휴식의 욕구를 외면함으로써 직업병에 이르게 되는 부작용을 지적하여 휴식의 필요성과 이것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사회』(천재교육, 2017)에 인용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요성」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여가의 의미를 설명하며 여가는 단순히 ‘노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일과 놀이(여가, 휴식)의 분리를 넘어 일과 놀이가 통합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본질을 노동을 중시하는 도구적인 인간 ‘호모 파베르’에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설파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table border="1"> <tr> <th>위반 글자 수</th> <th>감점 점수</th> </tr> <tr> <td>±1~25자</td> <td>1점 감점</td> </tr> <tr> <td>±26자 이상</td> <td>2점 감점</td> </tr> </table>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0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게 된 상황을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① 허 씨가 어떻게 토포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한 경우.(5점)  
**[예시]**

(아)에서 허 씨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하면서 동료 간의 불화, 심리적 불안과 불면 등이 낳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토포 상태에 이르렀다.

②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해 ‘허 씨’의 상태를 설명하였는지를 파악한 경우.(5점)  
**[예시]**

허 씨는 성과에 대한 욕망으로 휴식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외면하여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2)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자)와 (차)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는지를 평가한다.(10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으로서의 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과 함께 휴식을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고 일과 여가를 조화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합하여 모두 언급한 경우.(10점)

더 많은 일을 위한 재충전으로서의 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만을 언급한 경우.(5점)

휴식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고 일과 여가를 조화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만을 언급한 경우.(5점)

**[예시]**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한 방안을 (자)와 (차)를 통합하여 제시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휴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런 재충전으로서의 휴식을 넘어, 여가 생활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높일 뿐 아니라 일과 여가의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과 놀이가 통합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여가가 삶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점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26자 이상	1점 감점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우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게 된 상황을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설명 (10점)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른 상황을 정확히 제시	2-5점
		(자)의 논지를 잘 활용하여 ‘허 씨’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	2-5점
	②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자)와 (차)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는지를 평가 (10점)	(자)와 (차)의 논지 중 하나만을 활용	3-5점
		(자)와 (차)를 통합적으로 고려	8-10점

**7. 예시 답안**

(아)의 허 씨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에 성공하기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동료 간 갈등, 심리적 불안과 불면 등이 낳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토포 상태에 빠졌다. 이 원인을 (자)로 설명하면, 허 씨는 성과에 대한 욕망으로 휴식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외면하여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자)와 (차)를 통합하여 제시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휴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런 재충전으로서의 휴식을 넘어, 여가 생활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높일 뿐 아니라 일과 여가의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과 놀이가 통합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여가가 삶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418자)